

“사전 편찬의 주체를 말하다”에 대한 토론문

도원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dony68@korea.ac.kr

발표자께서는 사전을 둘러싼 거시적 변화 중에서도 사전 편찬 주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편찬 주체의 변화 과정과 세부 양상을 자동화, 대중화, 분산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자동화의 수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핀 뒤 그 명암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편찬 주체의 대중화와 분산화를 개방형 사전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뒤 최근의 경향을 다양한 예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사전 편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사전 편찬 주체의 변화가 사전의 제작을 넘어서서 유통과 활용의 측면에서 다각화되면서 편찬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밝히신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편찬 주체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환기시킴으로써 사전 편찬자의 저변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주장하신 바는 향후 개방형 사전을 발전시켜 언중의 지식문화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최신 변화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자동화의 진화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사전이라고 보시는 견해에 일면 동의하는 바입니다. 언어사전의 경우 표제어를 중심으로 여러 미시 구조가 모듈화하면서 그 자체가 다양한 검색 결과로 산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전달과 이용이라는 효용성을 전제로 한 자료물치이며 대다수의 데이터베이스가 기계 가독형 자원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목적, 사용자 요구, 구현 목표에 따라 그 자체가 정보, 나아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백과사전, 지식사전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면 ‘데이터베이스=사전’이라는 공식이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자동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정보 보호와 저작권이 아닌가 합니다. 자동화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 크롤링을 통해 도출된 뜻풀이나 용례가 이용자에게 노출될 때 정보의 신뢰성만이 아니라 정보의 법적 가치 역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화 성과물이 이익 구조를 가지게 될 때 저작권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이 자동화 과정에 단순 작업자로 투입되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저작권의 입장에서는 편찬자의 파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화 사전의 주체도 해당 산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개방형 사전, 예를 들어 <우리말샘>이나 <네이버 오픈프로사전>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화, 분산화가 발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사전의 저작권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전문가건 일반인이건 사전을 편찬하거나 어휘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실행해야 하는 일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완전 개방형 사전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에브리피디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편찬자,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활성화된 지식 서비스로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추이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함께 고려해야 할 조건이나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보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6장에서 언급하신바, 개방형 사전의 등장은 데이터 시대에 사전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사전의 역할, 즉 규범적 증거로서의 기능이 축소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래의 경향에서 대중화,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와 기관이 사전 편찬을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용의 사전에서 특수 사전으로, 일반어 중심의 사전에서 전문어, 사용역 중심의 사전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 편찬과 어휘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도하는 기관, 포털, 사전학계가 개방형 사전의 양적, 질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여섯째, 사전 편찬의 자동화가 2010년대 이후로는 뜻풀이 문장을 작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셨는데요, 뜻풀이문을 자동화한 국내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